

농진청이 제시하는 겨울철 가축 분뇨 퇴 액비화 시설관리 요령

낮은 온도로 인한 발효 효율 저하 막아야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과 관리요령 등을 제시했다.

농가 규모의 퇴·액비화 시설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낮은 온도와 큰 눈은 시설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축종별 축산농가의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시설의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지붕이나 벽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원지커튼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커튼을 내렸을 때 벌어지는 부분은 없도록 정비하고 특히 찬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또는 북쪽 벽면은 보온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지붕 파손되면 바로 수리 퇴적식 퇴비단 위치는 온도가 높은 남쪽으로 농가형 시설 애김온도 되도록 7도 이상 유지”

지붕이 파손되면 누수가 얼어붙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퇴비단에 물이 떨어져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바로 수리한다.

퇴적식 퇴비단의 경우, 추운 날에는 뒤집기를 자제하고 뒤집기가 필요하다면 2일~3일간 따뜻한 날을 골라 한 낮에 실시한다. 퇴비단 위치는 가급적 온도가 높은 남쪽으로 정한다.

송풍 퇴비단의 경우, 송풍기 가동은 한 낮에 실시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송풍을 멈추도록 한다. 기계 교반식 퇴비단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시간에 교반기를 작동한다.

액비화 시설은 보온과 폭기 퇴비나 액비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등 관리에 유의한다. 농가형 시설에서 액비온도는 되도록 7C 이상 유지 하는 것이 좋다. 지상형 액비화 시설은 지붕과 벽체 사이에 공간을 보온 덮개 등으로 막아 내부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송풍 시설은 밤보다는 낮 동안 가동하며 액비 윗부분이 완전히 얼었을 때에는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얼음을 깨뜨린 다음에 가동해야 송풍장치의 고장을 막을 수 있다.

돈사(돼지우리) 슬러리(분뇨혼합액)를 유입할 경우에는 하루 중 슬러리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선택하고 작업완료 뒤에는 배관에 남아 있는 액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겨울철에는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시설 지붕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면 부상이나 시설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없애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정광화 농업연구사는 “농가들이 겨울철 퇴·액비화 시설 관리 요령을 통해 질 좋은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고 이듬해 영농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거짓’ 산재, 못걸러 내나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까지 지급한 산재사건 민간보험사 신고... 경찰, 허위산재로 밝혀 건설업체 “공단, 허위산재 적발 능력 키워야”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허위로 의심돼 사업주가 승인날인을 거부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공단이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한 산재사건이 민간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서 허위산재로 밝혀져 2명이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해 공단이 허위산재 적발 능력은 물론 의지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최근 허위로 의심되는 산재가 많아져 공단의 공식적인 조사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지만 공단은 근로자편이란 느낌이 들게 산재를 쉽게 인정해주는 추세고, 과학적인 조사보다는 재해자와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에 달미가 잡힌 사건도 근로자가 공단에서 보험금 2050만원

을 수령하고 민간보험회사로부터 근로자재해보험금 90만원을 받은 시점에 민간보험사가 목격자 진술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업자의 날인거부는 한 의견일 뿐이고 거부사례가 많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며 “지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고 승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승인결과에 의의가 있으면 재심청구 기회가 있는데 사업주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하지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장기간이라, 차라리 허위산재가 많아지는 만큼 공단이 민간보험사 수준의 조사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허위산재가 발생되지 못하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허위 산재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재부정수급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지만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산학교류세미나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5일 전북대학교 상과대학과 산학교류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자리 문제와 저금리 정책’과 ‘최근 전북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금리 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했으며, 전북지역 주택시장의 특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토의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은 2008년 6월 ‘산학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 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5일 전북대학교 상과대학과 산학교류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자리 문제와 저금리 정책’과 ‘최근 전북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섬진강 하천관리협의회 개최

6일 남원국토사무소에서 익산국토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 등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섬진강 하천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 이후 섬진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섬진강을 더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재용 기자

농식품부, 태풍 ‘차바’ 피해 농가 지원방안 마련

최근의 쌀값 하락 추세에 더해 지난 10월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 자금 상환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태풍으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

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은 1년간 상환연기하고 이자 및 임대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 접수처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농지은행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

연기 및 그 이자와 임대료 감면으로 융자원금 상환 연기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 금회 납부대상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 사업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등이다.

신청절차는 농가는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기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

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본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과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6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